

Daily Auto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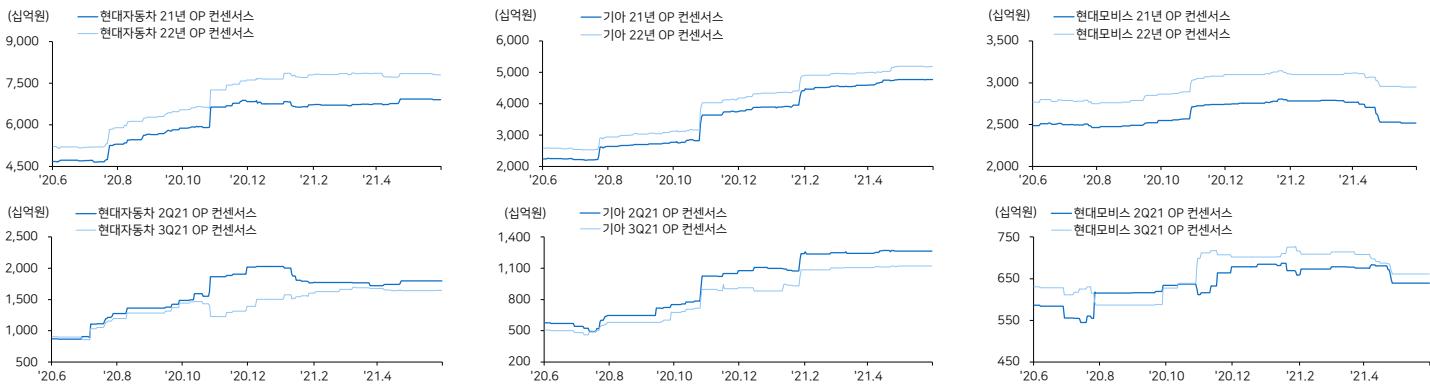
2021. 6. 8(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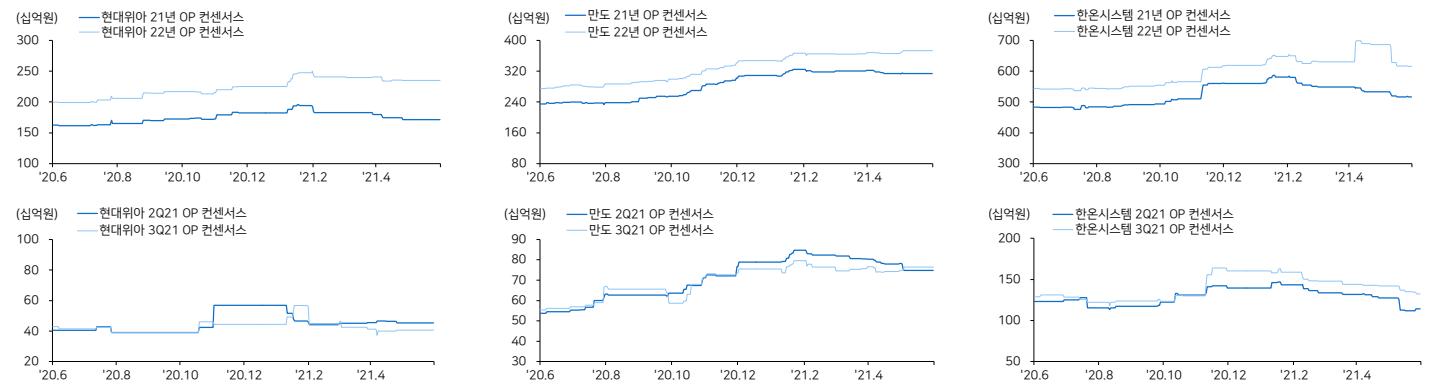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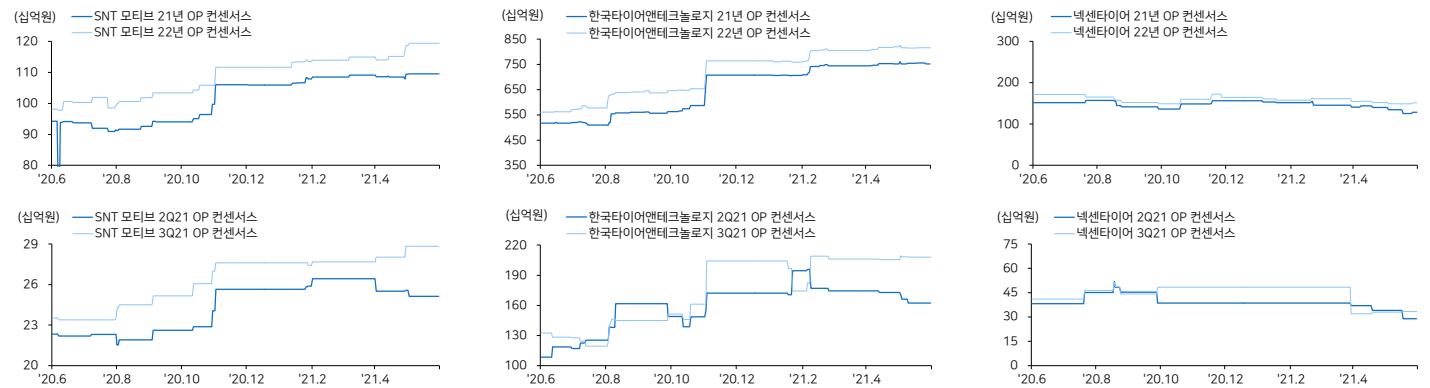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운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전기차 생산기지로 (국민일보)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온6' 생산 기지로 거듭남. 이르면 다음 달 전기차 생산을 위한 새 단장에 착수할 예정이며, 7~8월중 기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평일 업무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개인용 사용하는 차량공유서비스.

<https://bit.ly/3zamaW3>

기아, 전기차 공유 서비스 '워블 비즈' 기업 대상 실시 (지피코리아)

기아는 '워블 비즈'를 출시한 기업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 워블 비즈는 공공부문이나 기업이 정해진 업무시간 동안 전기차를 구독해 평일 업무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개인용 사용하는 차량공유서비스.

<https://bit.ly/3pHcLe9>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연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5년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가 열림.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7일 밝혔.

<https://bit.ly/3x5UCPW>

Tesla plans to put Insurance, FSD subscription directly into smartphone app (Teslarati)

Tesla is planning to put its Insurance program and upcoming FSD subscription directly into its Smartphone app, according to a software engineer who recently reverse-engineered parts of the automaker's application.

<https://bit.ly/3inFXLE>

현대차, 美서 비용 최적화 돌입…시장 지배력 높인다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저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비용 최적화에 돌입. 최근 두 자릿수로 올라선 점유율을 바탕으로 신차 생산체계의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의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풀이됨.

<https://bit.ly/3x4hdmm>

현대차, 5월 러시아 1만6261대 판매…전년比 2.5배↑ (THE GURU)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러시아 시장에서 5월 러시아 시장에서 총 1만6261대를 판매함.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현지 소비자 수요가 회복세를 타자 판매 증대로 이어짐.

<https://bit.ly/3w6ZcgE>

폭스바겐그룹, 전기차 충전인프라 통합한다…현대차와 인프라 경쟁 (전자신문)

폭스바겐그룹이 아우디·포르쉐·폭스바겐 개별 브랜드 간 충전 인프라를 통합, 본격 확충에 나섬. 충전시설은 타사 브랜드 전기차에도 개방하지만 차주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적용해 경쟁력을 기른다는 계획.

<https://bit.ly/3x1Z2FS>

中"을 신에너지차 판매량 200만대 이상..."잡아야 할 기회" (파이낸셜뉴스)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이 올해 자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00만대를 넘어서실 것이라고 예상됨. 중국은 한국 기업과 다양한 기술협력을 제안했고 한국 측 전문가는 중국 시장을 잡아야 할 기회라고 평가함.

<https://bit.ly/3x5UCP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